

# 도시주부의 지출행동 유형

## Urban Housewives' Expenditure Behavior Type

조영희  
서원대학교 가정관리학과

Cho, Young Hee  
Dept. of Home Management, Seowon Univ.

### Abstract

The main objective of this study was to find urban housewives' expenditure behavior type. For this objective 4 dimensions of income expenditure behavior were classified with factor analysis and correlation coefficient and then cluster analysis was implemented. Subjects were housewives living in Seoul. As a result, three income expenditure behavior type were defined. They were type of high interested in income expenditure, time oriented type, and money oriented type.

### I. 문제 제기

오늘날의 다양화된 생활양식 속에서 주부들은 많은 의사결정 상황을 경험하게 된다. 즉 '어떻게 하면 가계소득을 보다 효율적으로 사용해서 가족들의 욕구를 충족시켜 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 집도 다른 가족들 못지 않은 생활을 할 수 있을까, 그리고 어떻게 하면 보다 질적으로 향상된 생활을 할 수 있을까' 등의 문제에 직면하게 되고 그에 따른 선택을 하게 된다.

최근 30년간 한국경제는 급속한 산업화 과정을 거치면서 가족의 소득을 크게 증가시켰다. 이것은 가족의 구매력을 증대시키면서 경제적인 풍요로움을 가져옴과 동시에 소비가 지나치게 강조된 나머지 '과소비 풍조'라는 사회적인 우려를 불러 일으켰다. 실제로 일본의 경우와 비교를 해 보면 '90년 한국의 국민 개인소득이 5,500달러였는데, 그 소비수준은 일본의 10,000달러 시기의 소비수준과 비슷하게 나타나(중앙일보, 1992.4.9) 그 우려를 뒷받침하고 있다. 그리고 그에 대한 비난이 '주부'에게 모아졌다는 사실은 주부의 가계관리 책임의 중요성을 시사한다. 그러나 대중매체의 보도나 여론은 가계행동을 단순화시키는 인상을 준다.

가계관리행동은 가족의 욕구충족을 위한 자

원사용의 과정에서 복잡한 양상으로 나타날 수 있다. 우선 경제성장으로 개별가계의 절대적인 소득은 향상되었지만, 가족의 요구수준이 질적, 양적으로 크게 증가함으로써 물질적으로 풍족한 사회에서도 알뜰함이나 절약과 같은 행동이 여전히 요구되고 있다. 또한 시간에 대한 기회비용의 증가로 여가와 같은 노동시간의 중요성이 대두되었고 특히 여성의 경우, 1980년대 중반 이후 급격히 증가한 기혼여성의 취업으로 가사노동과 직업을 병행해야 됨에 따라 금전적인 지출을 통한 시간 절약의 해소로 시간에 대한 대체재로서의 금전의 중요성이 인식되게 되었다. 그리고 현대사회가 대중소비사회라는 입장에서 가계관리의 선택이 방향지워지게 되는데, 즉 대중소비사회의 두드러진 특징 중의 하나는 과시적이고 순응적인 소비행동으로 가계는 소비의 '표준적인 짐꾸러미'(standard package)에 지출의 목표를 두게 된다는 점이다. 한편 1970년대 이후 미국을 비롯한 서구선진사회에 확산되고 있는 후기산업사회의 가치, 생활양식의 특징이 서서히 우리사회에서도 중요하게 인식되기에 이르러 사회가 획일적이고 양적인 생활양식이 보편적이며, 물질주의가 팽배하였던 산업사회에서 이제는 개성을 보다 중시하고 정신적인 만족을 추구하는 질적인 삶으로의 전이가 시작됨에 따라 이러한 변화는 자원에 대

한 태도, 자원에 대한 사용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어 소비·지출행동의 대안의 폭을 넓히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이러한 다양한 상황에서 행동의 선택은 가치에 근거하게 된다. 즉 생존적인 삶을 중요시할 수도 있으며, 타인으로 부터 인정받기를 원할 수도 있으며, 보다 창조적인 삶을 가치롭게 여길 수도 있다. 혹은 이 모든 가치를 지향할 수도 있다.

이렇게 가족들이 추구하는 지출행동의 유형을 밝히는 것은 소비가 점점 생산을 규정하는 경제구조에서 소비영역인 가계의 지출행동의 유형에 대한 정보는 경제의 소비영역의 진단에 중요한 정보를 제공하며, 보다 바람직한 지출행동을 위한 경제교육 프로그램에 기초적인 자료를 제공할 것으로 보인다.

## II. 지출행동의 차원

주부의 지출행동은 다양한 차원의 행동으로 구성되어질 수 있다. 지출행동은 일종의 욕구 혹은 가치에 근거한 행동으로 Kyrk(1933)는 소비의 가치를 생존가치, 지위가치, 집단 창출적 가치로 구분하고, 생존의 가치는 생리적 요구에 필요한 가치이며, 지위가치는 사회적 지위, 인정에의 요구와 관련되는 소비가치이며, 집단 창출적 가치는 심미적·종교적·창조적 관심과 관련되는 가치라고 하였다. 그리고 Cochrane과 Bell(1956)은 소비와 관련된 인간의 요구를 생리적 요구와 사회적 요구로 구분하였다. 또한 Hoyt(1938)는 생활표준이 소비의 세요소-생리적 요소, 관계적 요소, 개인적 요소-로 구성된다고 하였다. 여기서 관계적 요소는 사회적 인정에의 욕구를 만족시키는 소비항목이며, 개인적 요소는 개인이 좋아하기 때문에 선택한 소비항목이라고 하였다. 이와같이 소비 혹은 지출행동은 추구되는 가치 요소에 의해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행동은 관련문헌에서 대체로 네개의 행동차원, 즉 금전절약지향, 시간절약지향,

타인지향, 질적인 삶의 지향 지출행동으로 표현되고 있음을 볼 수 있으며, 이들의 각각의 특성은 다음과 같다.

### 1. 금전절약지향

현대 산업사회의 사회경제적인 발달과 함께 가계소득은 증가하였지만 가족의 요구는 다양화되고 고급화되고 있으며, 동시에 도시인구의 급증으로 발생한 주택난은 도시가계에 경제적 부담의 요인으로 작용하여 가계가 실제 사용할 수 있는 화폐량은 크게 감소되고 있다. 거기에 덧붙여 교육에 대한 관심의 고조로 가계가 부담하는 교육비용이 증가됨으로써 경제적인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있다.

이와같이 자원의 적정성은 자원 자체에 의해서 평가되는 것이 아니라 요구에 그 준거를 둔다. 즉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을 때 우리는 적정하다고 한다. 그러나 인간의 욕구는 계속적인 것이며 늘 새롭게 창조되기 때문에 대부분의 경우 자원의 양은 욕구충족의 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가 많으며, 욕구의 특성이 현재보다 나은 상태를 희구하는 것이므로 요구와 자원과의 격차는 늘 존재하게 된다. 더우기 기술의 발달은 이러한 상황을 더욱 촉진하고 있다. 의류, 가구나 기기과 같은 내구재 등의 순환속도는 기업의 이윤추구라는 목적하에 가속화됨으로써, 창조되는 '유행'에 의해 가족은 물건의 폐기를 요구받게 된다.

역사적으로 자원이 절대적으로 부족했던 시기에도 가족의 기본적인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자원의 효율성, 근검과 절약이 요구됐다면, 현대사회에서는 자원의 절대량이 부족하기 보다는 다양하고 복잡한 관리상황으로 가계는 효율적인 관리를 요구받고 있다고 할 수 있다.

### 2. 시간절약지향

시간을 하나의 자원으로서 인식하게 된 것은 그리 오래된 일이 아니며, 특히 생산시간 외

1) 1980년부터 1992년 사이의 경제활동인구를 성별로 살펴보면 남자의 경제활동참여율은 일정한 변화를 보이지 않는 반면, 여자는 42.8%에서 47.3%로 증가하였다. 그리고 여성경제활동인구의 연령계층별 추이를 동기간에 걸쳐 비교해 보면, 24세 이하의 여성은 참여인원이 감소한 반면, 기혼자일 가능성이 높은 25-44세 집단에서는 40.6%, 45세 이상은 63.4%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통계청, 1993). 또한 1990년 <인구주택총조사보고서>에 의하면, 전국부부구성가구 중 주부가 취업한 가구의 비율은 29.8%로 나타났다(통계청, 1992).

의 시간에도 가치나 중요성을 부여하게 된 것은 최근의 일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노동'이라고 인식되지 않았던 집안 일을 하는 주부의 시간에 대한 논의는 불필요한 것이며 관심의 대상 조차도 되지 않았다.

그러나 사회경제적인 변화와 함께 여성의 취업이 증가하게 되고<sup>1)</sup> 소득의 향상과 함께 여가의의식이 대두되면서 '시간'은 행동선택의 중요한 준거가 되었다. Becker(1965)는 주부의 가사노동을 시간자원의 사용에 기초하여 생산의 개념으로 편입시킴으로써 가계생산시간과 시장노동시간의 선택을 나타내는 시간분배모형을 제안하였다. 그에 의하면 가계는 소득과 시간의 제약에 의해 영향을 받는데 이것은 가계생산도 시간이 사용되는 시장노동과 동일한 노동이며, 가계노동시간과 시장노동시간과는 대체적인 관계에 있다고 가정된다. 한편 Gronau(1977)는 가계생산인 가사노동과 개인소비인 여가를 구분하지 않은 Becker의 모델을 수정하여 개인의 시간을 가계생산시간과 시장 노동시간 그리고 여가로 구분하였다. 그리고 시간에 대한 배분의 결정은 개인의 시간 비용에 따라 효용을 극대화하는 점에서 결정이 된다고 하였다. 이 이론에 따르면 임금이 높은 주부의 경우는 낮은 주부보다 시장노동에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하게 된다. 이러한 사실은 많은 실증연구에서 입증되었는데, Jacobs, Shipp, Brown(1989)의 연구에서도 시간가치가 증가하면 재화에 비해 상대적으로 시간의 비용이 상승하게 되므로 주부들은 노동시장에 진입하게 되고 편의식품으로 요리시간을 줄이고, 아이 돌보는 사람의 사용으로 자녀돌보는 시간을 절약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Linder(1970)는 요소가 일정할 때 취업주부의 가계의 경우보다 가계생산에 시간을 적게 사용하고 재화를 더 많이 구매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적으로 주부의 취업은 직업과 가사노동이라는 이중역할로 인한 시간적인 제약을 초래하게 되는데, 이들이 경험하게 되는 시간의 제약은 객관적인 시간의 부족에서 오는 것도 있지만 심리적으로 지각되는 시간의 제약에서 비롯되기도 한다. 이러한 주부의 심리적인 시간의 제약은 가족 이데올로기와 무관하지 않다. 즉 오늘날의 부부간의 역할구조 속에 내재되어 있는 신전통주의(neo-traditionalism)

에 의해, 남편의 가정내 역할의 변화는 없이 여성의 도구적인 역할이 수용되는 현상이 보편화되고 있는데, 바로 이러한 현상이 주부의 시간적인 제약의 주된 원인이 되고 있다.

Strober와 Weinberg(1980)는 취업주부가 취업주부에 비해 모든 소득수준과 생활주기단계에서 시간제약에 직면해 있다고 보고, 취업주부가 시간을 절약하기 위한 전략을 제시한 바 있다. 그리고 Nickols와 Fox(1983)는 Strober와 Weinberg의 연구를 확장하여 취업주부가 '시간구매' 또는 '시간절약' 전략을 사용하는지를 조사하였다. 그 결과 취업주부가 취업주부 보다 아이돌보기, 외식, 종이기저귀를 더 구매함으로써 '시간구매' 전략을 이용하고 있으며, 집에서의 식사를 적게 하고, 가계생산시간을 줄이며, 여가시간을 즐기므로써 '시간절약' 전략을 사용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한편 가계생산과 관련하여 또 다른 중요한 활동으로 나타나는 것이 쇼핑이다. 여러 경험적 연구들은 주부들이 상점과 상점간을 오가는 길에서 상당한 시간을 소비한다고 하였다.(Walker & Woods, 1976; Linder, 1970). Walker와 Woods(1976)는 쇼핑이 규칙적인 활동으로서 가사노동시간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 1967-1968 연구에서 쇼핑시간이 가사노동시간의 12-14%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쇼핑시간은 개인의 시간사용 뿐만 아니라 정보의 탐색 차원에서 시장의 효율성과도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Strober와 Weinberg(1977)는 취업주부의 경우 시간의 상대적 희소성은 쇼핑행동에 영향을 줌으로써 내구재 구매와 지출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하였다. 이와 같이 주부의 쇼핑시간은 가족의 지출에는 물론 시장의 효율성에도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대체로 시간관리에 대한 연구는 시간제약의 측면에서 취업주부에 집중되어 있다. 그러나 오늘날 확대된 여성의 역할은 취업 이외의 요인으로도 시간제약을 경험하게 된다. 우리나라 도시 중산층의 주부들의 생활을 연구한 문옥표(1992)는 남편의 생활이 주로 남편 자신을 중심으로 개별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수입활동을 제외한 모든 일이 주부의 영역으로 흡수된다고 하였다. 그들은 주어진 소득으로 가계를 꾸려가기 위해 엄청난 양의 시간을

소비하게 된다. 그에 의하면 그들은 생활에 필요한 정보를 얻어야 하고 가족의 생존적인 욕구충족을 위해 알뜰한 구매를 해서 직접 만들어야 하고, 가족들의 사회적인 관계의 유지를 위해 가족들의 구매를 대행해야 하며, 사회적인 관계망을 유지하기 위해 시간을 써야 하며, 불완전한 교육제도의 완충역할로서 자녀가 어렸을 때부터 자녀교육에 대한 시간을 할애해야 한다. 또한 재산관리와 증식을 위해 그들은 많은 정보활동을 해야 하며 그것을 집행하기 위해서 실제로 여기저기를 다녀야 한다. 이와같이 우리의 교육제도, 주택정책, 물품유통구조, 물가정책, 금융관리가 가계활동에 의존함으로써 주부의 시간은 소비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전업주부의 경우 또 다른 형태의 시간제약을 경험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그러나 가계생산을 대체하는 상품과 서비스 구매는 주부의 시간절약을 위한 행동전략으로서만 가능하다고 볼 수 없다. 오늘날 확산되고 있는 편이주의를 추구하는 심리적 요인에 의해서도 가능하다고 보인다.

이상에서 볼 때 주부의 시간의 제약은 취업, 여가의식의 증대, 확대된 주부의 역할 등에서 비롯될 수 있으며, 그러한 제약으로 영향을 받는 활동영역은 구체적인 가사노동시간 뿐만 아니라 정보탐색을 포함한 구매과정에서도 발생하게 됨을 알 수 있다.

### 3. 타인지향

소득의 향상과 함께 소비의식, 소비패턴이 크게 변화하였다. 상품의 효용은 물리적인 효용에서 보다 비물리적인 효용, 즉 지위의 유지나 타인으로 부터의 자기존재의 인정 등에서 추구되며, 이러한 현상이 어느 특정 소수에게만 국한되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이 오늘날 대중소비사회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Riesman(1962)은 이런 맥락에서 사회발전 에 따른 개인의 사회적 성격을 규명하고 있다. 그에 의하면, 이제 점차로 중요한 것은 물질적인 환경이 아니라 '타인'이 문제가 되는 것이다. '결핍심리학'(scarcity psychology)은 여가와 과잉생산물을 낭비적인 사치와 소비를 할 수 있는 '풍부한 심리학'(abundance

psychology)'에 자리를 물려주게 된다.

이 시기에는 교육, 레저, 서비스 등의 소비 증가를 수반하게 된다고 하였다. 이제 '타인'이란 누구인가 하는 것이 문제가 된다. 그래서 타인-선조들이 아니라 동시대의 타인-으로부터 시인과 지도를 받고자 하는 욕구가 어느 시기 보다는 강조된다고 하였다. Riesman은 이러한 점에 근거하여 이 시기에 요구되는 인간을 '타인지향적 인간'(other directed people)이라고 하였으며, 이들로 구성되는 사회를 '타인지향에 의존하는 사회'(a society dependent on other direction)라고 하였다. 어느 시대이건 타인으로 부터의 인정이 중요하지 않은 시기는 없다. 그러나 이것을 주요한 지향원천으로 삼는 것은 타인지향형의 경우 뿐이라고 하였다. 이러한 측면은 Fromm의 현대인의 '시장지향형'의 성격에서도 밝혀지고 있다. Veblen도 고도로 조직된 산업사회에 있어서는 궁극적으로 명성의 기반이 되는 것은 금력이며, 또한 금력을 과시하고 명성을 획득하고 유지하기 위한 수단은 유한의 재화와 과시적 소비라고 하였다. 즉 타인의 일상생활에 무감각한 사람들에게 자신의 금전적 능력에 대한 인상을 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지불능력의 과시 뿐이라는 것이다. 이러한 행동은 습관적인 성격을 가지며, 정상적 만족을 주는 뚜렷이 낭비적이고 명예로운 지출은 생존이 낮은 욕구에만 이바지하는 지출보다 더 불가피하게 생각되며, 거기서 후퇴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라는 것이다. 또한 이러한 소비형태는 계급의 경계선이 흐려진 틈을 타 상류계층의 행동은 곧 그 하위계층에 의해 모방되는 것이다.

한편 이러한 타인지향적인 소비 즉 과시적이고 모방적이며, 순응적인 소비에 대한 평가는 양면성을 갖게 되는데, Smith(이미용, 1991 재인용)는 소비가 과시로 전환되어질 때만 부의 불균형이 사회의 안녕과 지속성에 원천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소비형태는 필수불가결한 사회현상으로 생각되고, 동시에 계층화된 사회에 있어서 적당한 것일 뿐만 아니라 부유층의 이러한 소비행동은 가난한 사람들에게 대한 동기화로 작용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사회에 긍정적인 효과를 갖는다고 하였다. 그러나 Veblen은 과시적인 소비는 비생산적인 소비를 통해 이루어지는 것인만큼 낭비적 요소가

필수적이며, 더욱 문제의 심각성은 하층계급의 과시적 소비의 모방에 있음을 지적하고 부유층의 과시소비에 대한 부정적인 견해를 밝히고 있다.

일반적으로 과시소비의 행위는 전통적인 수요이론의 틀에서 설명될 수 없는 하나의 이단자이다. 즉 가격이 상승할 때 수요는 감소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증가하는 것이다.(홍부길,1980). 이러한 과시적 소비현상에 대해 Dusenberry(김대식 외,1988)는 그의 상대소득 가설에서 전시효과의 개념으로 설명하고 있다. 소비자는 자신의 현재소득은 물론 과거의 최고소득, 비교대상이 되는 타인의 소득을 중요시하여 자기가 속해있는 계층의 사람들과 비교하면서 생활하기 때문에 개인의 소비는 사회적 의존관계에 있는 타인의 소비행태, 즉 타인의 소득수준에 의해 영향을 받게 된다는 것이었다.

최근 우리나라 가계소비패턴은 급격히 변화되고 있으며, 이런 지표를 자세히 살펴보면 필수재의 소비 증가율에 비해 선택재의 소비 지출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어 과시적 소비의 가능성을 쉽게 짐작해 볼 수 있다.

#### 4. 질적인 삶 지향

오늘날 기술의 향상, 경제적인 성장, 사회적 개발로 물질적 자원이 풍부해지고 사회환경이 복잡해졌으며, 따라서 개별가족이 사용할 수 있는 자원의 범주나 선택의 가능성이 확대되고 자신 및 환경에의 통제 가능성이 커졌다. 그러나 사회적 제발전은 물질적 생활의 풍요와 생활의 평준화를 가져온 반면 공해, 교통재해, 생활의 획일화, 물질우선주의와 같은 여러 문제를 야기시키고 있다.(이기영, 1984). 그리고 이러한 사실은 사회의 공통된 관심사로 수렴되기에 이르렀다. 무엇인가 달라져야 한다는 인식과 함께 현대 산업사회의 문제가 무엇인가에 대한 의문에서 부터 이제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반문하게 되었다.

이러한 인식은 자원의 사용과 밀접한 연관성을 갖는다. 즉 자원을 어떻게 쓸 것인가는 곧 삶의 방식에 의해서 규정되기 때문이다. 지금까지의 보편화된 자원에 대한 철학은 '많고', '축적하고', '소비하고', '과시하고', '편리하고', '만족하고', 즉 물질주의에 기반한 가치에 기초를 두어 왔다. 그러나 이제는 이러한 방식이 더 이상의 만족을 주지 못하며, 오히려 자신으로부터, 사회로부터, 자연으로부터 소외된다는 인식에 이르게 되면서 자원사용에 대한 새로운 대안을 모색하게 되었다.

그리고 이러한 인식과 움직임은 최근 '생활의 질'이라는 테마를 중심으로 모아지게 되었다. 이것은 Fromm(고범서, 1992)의 초생존적 욕구(trans-survival needs)에 의한 '존재'(To Be)로서의 삶의 의미를 내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결국 질적인 삶이란 인간의 보다 실존적인 삶을 지향하는 개념으로, 구체적으로는 도래하고 있는 새로운 가치, 즉 과거의 물질주의에서 정신적 중요성의 강조로, 획일적인 소비양식에서 개성적인 소비로, 소유나 축적의 가치에서 사용의 가치로, 일 중심의 생활에서 여가중심의 생활로, 개인주의·집단이기주의에서 공동체 의식으로, 기능적인 삶에서 미적 감각을 증시하는 삶으로의 지향과 방향을 같이 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 III. 연구문제 및 연구방법

#### 1. 연구문제

본 연구에서 가계지출행동의 유형을 파악하기 위한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1) 도시주부의 지출행동은 어떠한 유형으로 분류되며 각 집단별 특성은 어떠한가?

#### 2. 조사대상 및 조사도구

2) 80년대 중반이후 내구재 구매, 외식비 지출이 급증, 매년 30%의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중앙일보, 1992. 4. 9)

승용차의 경우	'87	'88	'89	'90
	31.6%	35.8%	44.1%	35.4%
외식비의 경우	49.6%	29.9%	62.7%	24.4%
교육·교양오락비	'85 - '90 사이에 2.8% 증가 (같은 기간에 일본의 경우는 0.7% 증가)			

본 연구에서는 대도시 가계의 유자녀 주부를 조사대상으로 선정하였다. 여기서 대도시에 거주하는 유자녀 가계로 한정된 것은 지출에 대한 가계 내적·외적 요구가 보다 다양하여 지출행동의 유형화에 유용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조사도구는 자기기입식 질문지로,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과 지출행동유형을 파악하기 위한 문항으로 구성하였다. 지출행동유형의 척도는 금전절약지향, 시간절약지향, 타인지향, 질적인 삶 지향의 네 차원으로 구성하며 총 68문항으로 이루어졌다. 그리고 각 문항별 응답에서 '정말 그렇다'에 1점을, '전혀 그렇지 않다'에 4점을 주는 4점 리커트 척도로 구성하였다.

### 3. 자료수집 및 분석

본 연구의 조사는 1994년 7월에 실시된 예비조사를 통해 구성된 질문지로 1994년 10월 24일 - 10월 29일에 걸쳐 이루어졌다. 조사대상은 서울의 국민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6개 학교의 학생의 어머니로 하였으며, 총 250부의 질문지를 배포하여 210부를 회수하였으나 응답이 부실한 경우를 제외하고 203부가 분석에 사용되었다.

연구문제의 분석을 위한 통계방법으로 조사대상의 일반적인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빈도분포, 백분율을 적용하고, 척도의 문항구성을 위해 상관관계, 요인분석을 하였으며, 척도의 신뢰도를 검증하기 위해 크론바하의  $\alpha$ 를 사용하였다. 그리고 지출행동의 유형화를 위해 군집분석(cluster analysis)과 일원분산분석 및 던컨테스트를 하였다.

### 4.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성격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성격은 다음의 <표 1>과 같다.

## IV. 결과분석 및 논의

### 1. 지출행동의 차원

본 연구에서는 지출행동의 차원을 금전절약지향, 시간절약지향, 타인지향, 질적인 삶 지

<표 1>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성격

변수	구분	빈도	백분율
주부연령	30대	61	32.5
	40대	120	63.2
	50대이상	9	4.7
계		190	100.4
주부학력	국졸이하	20	10.1
	중졸	60	30.2
	고졸	94	47.2
	대졸이상	25	12.6
계		199	100.1
주부의 취업여부	비취업	136	69.4
	취업	60	30.6
계		196	100.0
가계소득	100만원미만	10	6.2
	100-149만원	45	27.8
	150-199만원	50	30.9
	200-299만원	31	19.1
	300-399만원	15	9.3
	400만원이상	11	6.8
계		162	100.1
주택소유 형태	자 가	115	57.5
	전 세	68	34.0
	월 세	15	7.5
	기 타	2	1.0
계		200	100.0

향의 네 차원으로 구성하였다. 각 차원의 척도를 정교화하기 위하여 문항간 상관관계와 요인분석을 한 결과 동일차원으로 묶이는 것이 확인된 문항으로 각 차원의 척도를 재구성하였다. 금전절약지향 차원은 총 10문항으로 구성되었고 신뢰도 계수 크론바하의  $\alpha$ 가 .68이었고, 시간절약지향 차원은 7문항으로 구성되었고 신뢰도 계수 크론바하의  $\alpha$ 가 .63이었으며, 타인지향 차원은 총 9문항으로 신뢰도 계수 크론바하의  $\alpha$ 는 .65로 나타났고, 질적인 삶 지향 차원은 9문항으로 구성되었고 신뢰도 계수 크론바하의  $\alpha$ 가 .65로 나타났다.

그리고 각 차원별 상관관계는 다음의 <표 2>와 같다. 즉 시간절약지향차원은 금전절약지향 차원과는 부적인 관계를 갖는 반면에 타인지향 차원과는 정적인 관계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2> 지출행동유형 차원별 상관관계

	금전절약 지향	시간절약 지향	타인 지향	질적인 삶지향
금전절약지향	1.0000			
시간절약지향	-.2640**	1.0000		
타인지향	-.1218	.3284***	1.0000	
질적인삶지향	.1236	.0964	.0479	1.0000

\*\* p < .01, \*\*\* p < .001

2. 지출행동의 차원에 따른 주부의 유형화

지출행동에 따라 연구대상인 주부를 유형화 하기 위해 앞의 요인분석 결과에서 얻어낸 6개의 차원을 가지고 군집분석을 하였다. 군집분석에 따라 유형화시킬 집단의 수를 결정하고, 집단들의 생활양식의 특성에 따라 명칭을 부여하였다. 그리고 집단별로 사회인구학적 특성을 살펴본 후 각 집단들의 특성을 요약 정리하였다.

1) 유형화 집단의 수 결정

군집분석의 결과에 따라 유형화시킬 집단의 수를 결정하기 위하여 연구자가 예측했던 집단의 수를 중심으로 4개, 5개, 6개 집단들의 빈도분포를 살펴보았다. 각 집단수별 빈도분포를 보면 다음의 <표 3>과 같다. 본 연구에서는 각 빈도분포가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5개 집단의 경우를 선정하였다.

<표 3> 집단수별 빈도분포

4집단 빈도		5집단 빈도		6집단 빈도	
1	131	1	19	1	19
2	44	2	111	2	114
3	2	3	45	3	39
4	3	4	2	4	3
		5	3	5	2
				6	3

2) 유형화 집단간 지출행동 차원의 차이 검증 및 유형화 집단의 명칭

앞에서 선정된 5개 집단이 지출행동에 차이가 있는 집단으로 분류되었는가를 검증하기 위하여 각 요인별 요인점수(factor score)를 사용하여 분산분석과 던컨테스트를 하였으며 그 결과는 다음의 <표 4>와 같다.

<표 4> 5개 집단의 지출행동 차원별 요인 점수와 분산분석 및 던컨테스트 결과

집단 지출 행동요인	1	2	3	4	5	분산 분석
금전절약형 던컨테스트# 집단간 순위	20.74 a 1	24.75 b 4	20.82 a 1	16.50 a 1	28.67 c 5	F 값 = 12.44***
시간절약형 던컨테스트 집단간순위	20.63 a 1	20.96 a 1	21.87 b 3	24.00 ab 1/3	22.67 ab 1/3##	F 값 = 1.50
타인지향 던컨테스트 집단간순위	21.37 a 1	23.59 b 2	23.82 b 2	26.00 ab 1/2	23.67 ab 1/2	F 값 = 2.12
질적인 삶지향 던컨테스트 집단간순위	20.89 a 1	24.23 b 2	23.47 b 2	25.00 ab 1/2	27.00 b 2	F 값 = 4.21**

\*\* p < 0.01 수준에서 유의

\*\*\* p < 0.001 수준에서 유의

# 던컨테스트의 결과 p < .05 수준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는 집단들간을 서로 다른 문자로 표시한 것임.

## 시간절약지향 차원에서 집단 5는 집단 1 및 집단 3과 유의한 차이가 없으므로 1/3으로 표시함.

<표 4>에서 분산분석 결과를 보면 지출행동유형의 4개 차원 중 금전절약지향 차원과 질적인 삶지향 차원에서 집단간에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한편 지출행동의 특성을 통해 각 집단의 명칭을 부여하기 위해 요인점수와 분산분석 및 던컨테스트 결과를 살펴보았다. 이때 던컨테스트 결과로 지출행동의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는 집단들의 요인점수에 각 집단의 지출행동 차원에 대한 순위를 살펴보았다. 그리고 각 집단의 특성을 고려하여 그 명칭을 부여하였다.

집단 1은 지출행동의 모든 차원에서 순위가 가장 높게 나타난 것으로 볼 때 '적극적 지출관리형'으로 볼 수 있다. 집단 2는 시간절약 지향을 제외하고는 순위가 낮게 나타나고 있으나 시간절약지향 차원에서는 가장 높은 순위를 나타내고 있어 '시간가치 강조형'으로 볼 수 있다. 그리고 집단 3은 다른 세 차원의 순위는 낮으나 금전절약지향의 차원만 높게 나타나고 있어 이 집단은 '경제적 알뜰형'으로 간주할 수 있다. 한편 집단 4는 금전절약 지향 차원에서 크게 점수가 낮고 순위에서는 높게 나타나고 있으나 다른 세차원에서는 점수가 높으며 순위가 혼재된 상태로 볼 때 '극도의 근검-절약형'으로 파악할 수 있다. 또한 집단 5는 네 차원에서 모두 높은 점수를 보이고 순위가 낮게 나타나는 '지출방임형'의 성격을 띠고 있다. 그러나 집단 4와 집단 5는 추구되는 행동이 혼재하여 일관된 행동으로 파악하기가 곤란하며 특히, 이 집단에 포함되는 조사대상자의 수가 미미하여 이 두 집단에 대한 유형화는 후속적인 연구의 필요성을 제시한다고 보겠다.

3) 지출행동유형별 사회인구학적 특성

지출행동유형별 집단의 사회인구통계학적 특성을 밝히기 위하여 지출행동유형별 주부의 연령, 학력, 취업유무, 남편의 학력, 남편의 직업, 가계소득, 신용카드사용여부, 계층의식 변수의 백분율과 빈도를 살펴보았다. 이것을 정리하면 <표 5>와 같다.

<표 5>의 연령분포를 보면 '적극적 지출관리형'이 다른집단보다 30대의 비율이 높으며 '경제적 알뜰형'은 40대의 비율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 '시간가치 강조형'은 '경제적 알뜰형'보다는 30대의 분포가 높게 나타나고 있다.

주부의 학력분포를 보면 '경제적 알뜰형'이 상대적으로 중졸과 대졸이 많고 고졸이 적게 분포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주부의 취업여부의 분포에서는 '적극적 지출관리형'이 취업율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난 반면 '경제적 알뜰형'에서 취업율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

남편의 학력의 경우 '적극적 지출관리형'은 대졸이상에서, '경제적 알뜰형'은 중졸에서 상대적으로 가장 많은 분포를 보이고 있다.

<표 5> 지출행동유형별 사회인구학적 특성 (단위 : % (N))

사회인구학적변수	유형 구분	적극적 지출관리형	시간가치 강조형	경제적 알뜰형
주부의 연령	30대	47.4 (9)	31.1(32)	25.6(11)
	40대	52.6(10)	62.1(64)	72.1(31)
	50대이상		6.8( 7)	2.3( 1)
계		100.0(19)	100.0(111)	100.0(43)
주부의 학력	국졸이하	11.1( 2)	9.2(10)	6.8( 3)
	중졸	22.2( 4)	26.6(29)	36.4(16)
	고졸	50.0( 9)	51.4(56)	38.6(17)
	대졸이상	16.7( 3)	12.8(14)	18.2( 8)
계		100.0(18)	100.0(109)	100.0(44)
주부의 취업유무	비취업	83.3(15)	65.4(70)	63.6(28)
	취업	16.7( 3)	34.6(37)	6.4(16)
계		100.0(18)	100.0(107)	100.0(44)
남편의 학력	국졸이하	5.6( 1)	4.6( 5)	4.4( 2)
	중졸	11.1( 2)	13.8(15)	26.7(12)
	고졸	50.0( 9)	56 (61)	40.0(18)
	대졸이상	33.3( 6)	25.7(28)	28.9(13)
계		100.0(18)	100.0(109)	100.0(45)
남편의 직업	전문직	22.2( 4)	10.3(11)	7.0( 3)
	경영관리직	33.3( 6)	41.1(44)	37.2(16)
	판매서비스직	16.7( 3)	20.6(22)	23.3(10)
	생산직	22.2( 4)	26.2(28)	30.2(13)
	무직	5.6( 1)	1.9( 2)	2.3( 1)
계		100.0(18)	100.0(109)	100.0(43)
가계소득	100만원미만	16.7( 3)	3.4( 3)	8.3( 3)
	100-149만원	16.7( 3)	23.4(25)	25.0( 9)
	150-199만원	38.9( 7)	31.8(28)	27.8(10)
	200-299만원	16.7( 3)	20.5(18)	22.2( 8)
	300-399만원	5.6( 1)	9.1( 8)	11.1( 4)
400만원이상	5.6( 1)	6.8( 6)	5.6( 2)	
계		100.0(19)	100.0(85)	100.0(33)
신용카드 사용여부	사용	52.6(10)	39.0(41)	35.7(15)
	안사용	47.1( 9)	61.0(64)	64.3(27)
계		100.0(19)	100.0(88)	64.3(27)
계층의식	중산층이상	5.6( 1)	5.7(6)	2.3( 1)
	중산층	44.4( 8)	56.2(59)	39.5(17)
	중산층이하	50.0( 9)	38.1(40)	58.1(25)
계		100.0(18)	100.0(105)	100.0(43)

남편의 직업분포에서는 '적극적 지출관리형' 전문직에서 높게 나타나고, '시간가치 강



조형'이 경영·관리직에서 가장 높은 분포를 나타내고 있고, '경제적 알뜰형'은 생산직에서 높은 분포를 나타내었다. 가계소득의 경우 세 집단에서 비슷한 분포를 보이고 있다. 그리고 신용카드의 경우 '적극적 지출관리형'이 신용카드를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고, '경제적 알뜰형'이 가장 적게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계층의식의 분포에서는 '시간가치 강조형'이 중산층 귀속의식이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고 '경제적 알뜰형'이 가장 낮게 나타났다.

이상을 종합해 보면 '적극적 지출관리형'은 30대 주부로 고졸의 학력을 갖고 취업하지 않고 있으며 남편은 대졸의 학력을 갖고 있고 남편의 직업이 전문직이며 신용카드를 많이 사용하고 있는 주부들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시간가치 강조형'은 40대 연령층의 주부로서 학력은 고졸이고 남편이 고졸의 경영관리직이며 중산층 귀속의식이 높은 집단이라고 할 수 있다. 반면에 '경제적 알뜰형'은 40대의 주부로 학력은 중졸이나 대졸이며 취업을 하고 있으며 남편의 직업이 생산직인 경우가 많고 신용카드를 적게 사용하고 있으며 중산층 이하의 계층의식을 갖고 있는 집단으로 성격지을 수 있을 것이다.

## V. 결론 및 제언

본 연구에서는 도시주부의 지출행동유형을 파악하기 위해 지출행동을 금전절약지향, 시간절약지향, 타인지향, 질적인 삶 지향의 네 차원으로 구성하여 군집분석을 통해 5개 집단으로 분류하였다. 5개의 집단은 각각 '적극적 지출관리형', '시간가치 강조형', '경제적 알뜰형', '극도의 근검 절약형', '지출방임형'으로 그 명칭을 부여하였다. 이와 같은 지출행동을 통한 집단의 유형화는 주부 집단이 다양한 지출행동을 추구하고 있음을 보여줌으로써 본 연구는 가계관리연구에 의미있는 정보를 제공한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극도의 근검 절약형'과 '지출방임형'의 두 집단은 각 집단에 속해 있는 집단의 구성원 수가 극히 미미하고, 지출행동유형 차원이 혼재되어 있어 하나의 유형으로 간주하기에는 문제점을 안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에 대한 것은 후속적으로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이것은 과연 지출행동유형이 5개 집단으로 분류될 수 있는지에 대한 재검토를 요구하는 것이며, 또한 이것은 고르지 않은 표집의 문제점도 지적하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지출행동에 대한 포괄적인 유형화를 위해 척도의 정교화 및 표집의 정선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본연구에서는 지출행동을 네 차원으로 구성하였는데 더 고려되어야 할 차원이 있는지에 대한 연구도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 참고문헌

- 고법서(1992) 가치관연구. 서울:나남.  
 문육표 외4(1992) 도시중산층의 생활문화. 한국정신문화연구원. 57-104.  
 손상희(1993) 가계소비패턴의 구조. 소비자학연구 4(2). 51-72.  
 이기영(1987) 가사노동의 상품대체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임정빈 외5(1994) 가정관리학. 서울:학지사.  
 통계청(1993) 한국통계월보 3월호.  
 ——(1992) 인구주택총조사보고서 1990.  
 홍두승(1987) 사회조사분석. 서울:다산출판사.  
 Becker,G.S.(1965) A theory of the allocation of time. The Economic Journal. 75. 493-517.  
 Cocrane,W.W. & Bell,C.S.(1956) The economics of consumption:economics of decision making in the household. N.Y.:McGraw-Hill. 손상희(1993) 재인용.  
 Fromm,E.(1976) To have or to be?. 최혁순 역(1992):범우사.  
 Hoyt,E.M.(1939) Consumption in our society. N.Y.:McGraw-Hill. 손상희(1993) 재인용.  
 Jacob,T.D., Shipp,S., & Brown,G.(1969) Families of working wives spending more on service and nondurables. Monthly Labor Review 112. 15-23.  
 Kyrk,H.(1933) Economic problems of the family. N.Y.:Harper & Brothers. 손상희(1993) 재인용.  
 Riesman,D.(1962) The lonely crowd. 김태화

역(1984):정암.

Strober, M.H. & Weinberg, C.G. (1980)

Stratiges used by working wives and nonworking wives to reduce time pressures. Journal of Consumer REsearch 96. 338-347.

Veblen(1899) The theory of leisure class. 최

광열 역(1983):양영각.